

**한중 수교 20주년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2012. 4.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 목차 》

- I. 한·중 수교 20년의 경험 성과 ----- 1
- II. 수교 20주년 경제협력 현안 ----- 7
- III. 수교 20년 과거와 미래 ----- 11

[참고] 한·중 관계 발전

1

한·중 수교 20년의 경험 성과

1 교역

- 1992년 한·중 수교 시 對中 교역액 64억 달러에서 2011년 2,206억 달러로 35배 증가
 - 1992년부터 2011년까지 對中 수출은 51배 증가 (\$27억 → \$1,300억), 對中 수입은 23배 증가 (\$37억 → \$864억)
 - 1992년 중국은 한국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1992년과 2011년의 對中 교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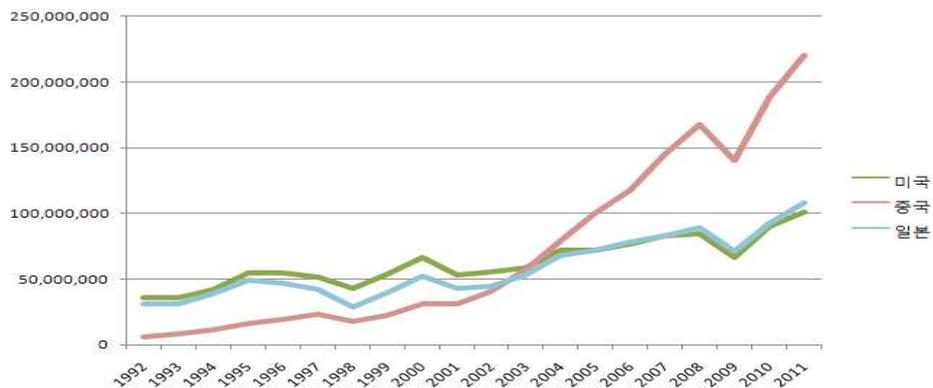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1992년	2011년	증대현황
교역액 (순위)	6,378,580 (5위)	220,617,247 (1위)	35배
수출 (순위)	2,653,639 (4위)	134,185,009 (1위)	51배
수입 (순위)	3,724,941 (4위)	86,432,238 (1위)	23배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1992년 수교 이후 주요국 무역액 추이 >

(단위: 천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중 교역액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함. 이는 한·미, 한·일 교역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함. 한·중 교역액은 1992년 5위에서 2004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음

<2011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중국	134,185,009	중국	86,432,238
2	미국	56,207,703	일본	68,320,170
3	일본	39,679,706	미국	44,569,029
4	홍콩	30,968,405	사우디아라비아	36,972,612
5	싱가포르	20,839,005	카타르	20,749,364
6	대만	18,205,965	호주	26,316,304
7	인도네시아	13,564,498	쿠웨이트	16,959,617
8	베트남	13,464,922	아랍에미리트연합	14,759,366
9	브라질	11,821,399	인도네시아	17,216,374
10	인도	12,654,078	독일	16,962,57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1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제4대 교역국임.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한·중 교역량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2011년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미국	324,300,300	일본	194,409,771
2	홍콩	267,515,990	한국	161,673,311
3	일본	147,290,056	미국	118,120,672
4	한국	82,924,697	대만	124,895,239
5	독일	76,433,383	독일	92,758,996
6	네덜란드	59,482,030	호주	80,929,735
7	인도	50,488,627	사우디아라비아	49,544,879
8	영국	44,113,002	러시아	39,043,250
9	러시아	38,885,811	말레이시아	62,017,271
10	싱가포르	35,297,389	브라질	52,648,797

(자료 : 중국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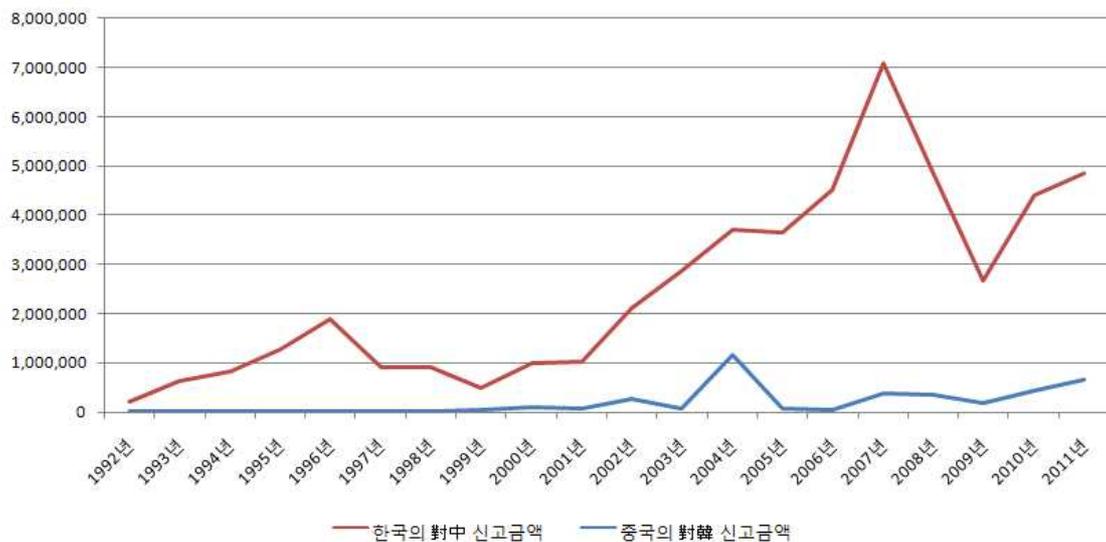
2 투자

□ 수교 이래 한국의 對中 투자 누적 신고건수는 44,386건, 누적 신고금액은 501억 달러 이상이며, 중국의 對韓 누적 신고건수는 7,527건, 누적 신고금액은 37억 달러임

- 한국의 對中 투자 신고금액은 1992년 약 2억 달러에서 누적 기준 224배 증가
- 중국의 對韓 투자 신고금액 또한 1992년 약 백만 달러에서 누적 기준 3,535배 증가
- 한국의 對中 투자 신고금액은 2007년 7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對韓 투자 신고금액은 2004년 1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한·중 해외투자 신고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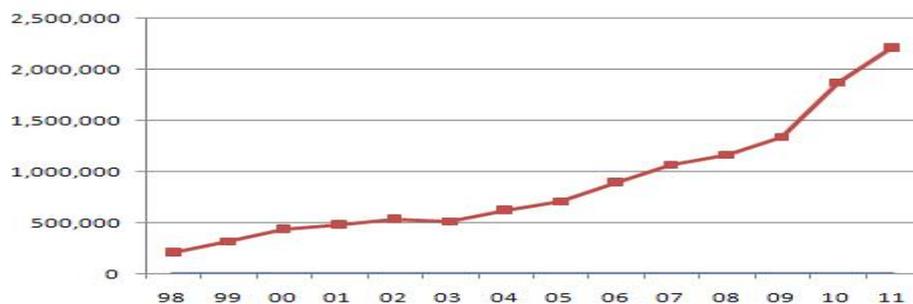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3 인적 교류

□ 1992년 수교 이후 인적교류 또한 활발. 2011년 총 641만 명의 인적 교류가 있었음 (방중 419만 명, 방한 222만 명)

- 1992년 9만 명에 불과하던 방한 중국인 수는, 1998년 중국정부가 한국을 자유여행 대상국으로 결정한 이후 급증, 2011년 222만 명으로 25배 증가

< 1998년~2011년 중국인 입국자수 증가추세 >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

□ 기타 교류

- 장기체류자 (2010년)
 - 한국체류 중국인 61만 명(조선족 41만 명 포함)
 - 중국체류 한국인 65만 명
- 항공편 (주당)
 - 주837회 상회(임시편 제외)
 - 52개 노선(한국 7개 도시, 중국 30개 도시 간)

- 유학생 (2011년)

- 한국 내 중국 유학생 6만5천명
- 중국 내 한국 유학생 6만2천명

* 한국 내 중국 유학생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73.8%, 중국 내 한국 유학생 비율은 전체의 21%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수가 중국내 한국 유학생 수를 초과

<연도별 유학생 현황>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중 양국 간 청소년·지도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이래 한·중 정상간 합의를 통해 청소년·지도자 특별교류를 실시한 후 점차 규모가 증가, 매년 400~800명이 상대 국가를 방문하고 있음
 - * 이는 양국 정부차원의 인적교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

1 한·중 FTA

1) 중국 FTA 현황

진행단계	국가
체결 완료	ASEAN,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
협상 중	걸프협력회의(GCC),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연구 중	인도, 한·중·일

(자료: China FTA Network)

- 현재 중국은 ASEAN,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7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6개 국가 및 지역에서 FTA가 발효되었음
- 홍콩, 마카오와는 FTA보다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과는 FTA의 과도기적 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조협약(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 * 중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FTA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양측 간 협상의 큰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함
- 걸프협력회의(GCC¹, Gulf Cooperation Council),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등 7개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 중임. 인도와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1) GCC: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이며, 참가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임

- 우리나라와는 공동연구를 마치고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연구가 진행 중임
 -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권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진행단계	국가
체결 완료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협상 중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연구 중	일본, 한·중·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자료: 한국무역협회 FTA포털)

-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²⁾, ASEAN, EU, 페루, 미국, 터키 등 8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와는 CEPA를 체결함. 현재 터키를 제외한 8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발효 중인 상태임
- 중국,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7개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 중이며 인도네시아와는 CEPA 협상 중임
- 일본, 한·중·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베트남, 몽골, 중미³⁾,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 및 지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러시아와는 양자경제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연구 중이며, MERCOSUR와는 TA(Trade Agreement) 협상을 위한 연구 중임
 - * TA : FTA 등 무역관련 협정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MERCOSUR 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하여 TA라는 용어를 잠정 사용

2) EFTA: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공동연구 참여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3) 한·중 FTA 진행경과

2004.09.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2006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연구
2007~2008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제5차 회의
2010.0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
2010.05.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방안 논의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 해각서 서명
2010.09.	제1차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 민감성 처리방안 등 협의
2011.04.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2.01.	한·중 정상회담 -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 합의
2012.03.	한·중 FTA 추진 사전 실무협의 개최

(자료: 한국무역협회 FTA포털)

-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 시작에 합의.
2005~2006년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마치고, 2007년부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수석대표 간 협의를 마침
-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합의한 후 2월
한·중 FTA 공청회를 마쳤음

2 기타 협력 분야

- 2002년부터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열리는 등 양국 간 투자·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5월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향후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양국 간 경험의 질적, 균형 발전 추구, 첨단 및 녹색산업 등 신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 또 충칭 양강 신구 한·중 산업단지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1992년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현재까지 양국 기관 간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교류 등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2년 11월에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된 이래 매년 공동연구, 중·단기 인력교류, 국제학술회의 및 다양한 형태의 공동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11월 제 11차 한·중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올해부터 IT, 위성, 항공우주과학,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10개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함. 또한 올해 신소재와 인공위성 분야의 신규 공동 연구센터가 설립될 예정

- 2010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국문화부가 “한·중 문화산업합작실행계획”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문화산업 분야 정책 정보 교류, 기술협력 및 공동제작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진행 중임
 - 중국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여러 편의 한중 합작 영화와 드라마가 진행 중임

4) 충칭 양강 신구 중한산업원: 2011년 중국 상무부와 한국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가 함께 조성한 산업단지

1 과거 20년

- 한·중 수교 20년 간 양국은 특히 경협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2011년 중국은 한국 무역의 20%를, 한국은 중국 무역의 7%를 차지
 - 양국 간에는 마늘분쟁·김치분쟁, 반덤핑 규제문제 등 통상마찰도 발생해 왔음

- 외교·안보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관계발전이 더디게 되었음. 이는 양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각 정권의 외교정책에 따라 일관적인 대북·대중 정책 유지가 어려웠음. 이에 따라 한·중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어왔음
 -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음.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하여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음
 - 북한 탈북자 문제에 관해 중국은 국제여론과 우리나라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 한·중 관계발전에도 저해가 되어왔음

- 그 밖에 양국 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비, 동북공정 등 역사분쟁, 올림픽 성화문제 및 개막식 사전 보도 문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폭력 문제, 이어도 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해 왔음

2 향후 전망

1) 지역경제통합

□ FTA 전망

-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 후 개방수준에 따라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의 실질GDP 증가가 예상됨

<한·중 FTA 발효 후 예상되는 거시 경제적 효과>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	실질GDP(%)
낮은 수준	0.95	2.28
높은 수준	1.25	3.04

* 양허 시나리오 - 한·미, 한·EU FTA: 협상결과에 기반한 시나리오

한·중 FTA: 개방수준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 (낮은 수준, 높은 수준)

* 2004년 이후 심화된 한·중 교역관계 미반영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나라의 수혜 예상 품목 : 중화학,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금속 등
- 우리나라의 피해 예상 품목 : 농산물, 의류 등 대량생산, 노동집약적으로 제조되는 범용 제품 등

< 한·중 FTA 예상 수혜 및 피해 품목 >

(단위: 달러)

수혜분야	수혜금액	피해분야	피해금액
섬유	19.8억	농수산업	2.6억
화학	48.7억	운송장비	7.4억
철강	5억	가공식품	3.6억
자동차	10.3억	의류	2.1억

* FTA 체결 후 10년간 해당분야 생산 증감에 따른 분석결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재 한·중·일 FTA체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보임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4월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에 동의하여 협상일정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

□ 기타 경제통합 전망

- 미래에는 국가대 국가가 아닌 지역별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TA)와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쉽(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EAFTA : ASEAN+3(한국·중국·일본)
 - * CEPEA : ASEAN+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확대의 대응책으로 한·중·일 FTA, EAFTA, CEPEA 체결 등을 통해 아시아 경제블록을 건설하여 미국의 아시아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함
 - * TPP는 FTA와 유사한 성격의 협정으로, 미국·호주·싱가포르·칠레·말레이시아·대만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현재 일본이 참가의사를 밝힘

2) 투자환경의 개선

- 올해 3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이 타결되어 향후 역내 투자자 유인·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3국은 이미 한·일(2003년), 한·중(1992년), 중·일(1989년)간 BIT를 각각 체결해 놓고 있음. 그러나 양자간 BIT와 3국간 BIT가 충돌할 경우 3국간 BIT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기존의 한·중 BIT의 투자자유화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한·중·일 BIT로 인해 우리기업의 對中투자가 더 유리해질 전망
 -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제도는 투자허가 이전은 적용되지 않으며, 허가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만 적용됨

3) 양국산업협력 증가

- 양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와 환경·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이 추진 중인 '12·5규획' 7대 전략적 신흥 산업과 우리의 17개 신 성장 동력 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예정

중국 7대 신흥 산업	한국 17개 신 성장 동력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 신소재: 특수기능과 고성능 복합소재 * 신에너지자동차: 플러그인식 혼합동력 자동차와 순 전기자동차 등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고효율 에너지 절약, 선진 환경보호, 재활용 산업 등 * 신정보기술: 3망(전신, 컴퓨터, TV네트워크)융합,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첨단 소프트웨어 등 * 바이오: 생물약, 생물농업, 생물제조업 등 * 첨단장비제조: 우주항공 산업, 해양 프로젝트 장비와 첨단 스마트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 * 고부가 서비스: 글로벌 헬스 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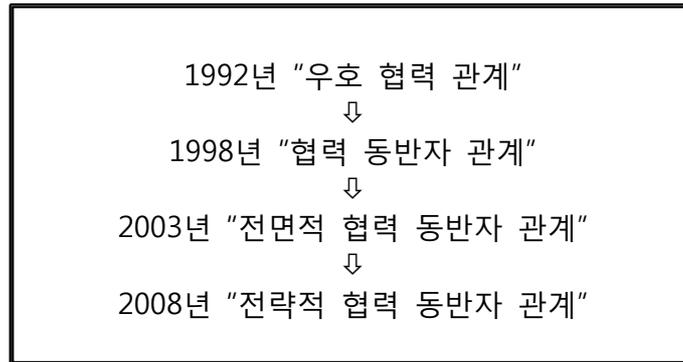
- 중국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5)에 의하면 앞으로 중국은 외자투자를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기술,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우대를 확대할 계획임
 - 한·중 FTA 협상 시 이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고려한 협상안이 반영되면 앞으로 관련 분야의 양국 간 산업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4) 전략적·실리적 외교노선 필요

- 최근 미·중 양국이 서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중국의 동북아공정 문제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역사분쟁과 이어도문제 등 영토문제와 관련, 철저한 준비와 슬기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됨

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

[참고] 한·중 관계 발전



- 한·중 양국은 오는 8월 24일, 수교 20주년을 맞이함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후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중국은 96년부터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크게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순수교 관계, 선린우호 관계, 동반자 관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혈맹 관계의 순으로 단계가 높아짐. 또한 동반자 관계에는 건설적, 전략적 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반자 관계라 할 수 있음
 - *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미국과는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북한과는 혈맹 관계였으나 1992년 전통적 우호 협력 단계로 하락함
-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20년간 인적·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특히 2011년 한·중 무역액 2천억 달러 돌파, 2012년 한·중 FTA 협상 개시 전망 등 현재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